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 1968년부터 시행되어온 '대한민국 과학 기술상'을 확대, 개편한 대통령상으로, 연구개발업적이나 기술혁신으로 국가 발전 및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들에게 수여된다. 과학기술부와

어렵게 공부하고 사회에 공헌도 높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높은 수익을 얻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황 교수의 연구실에는 4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밀리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이곳 연구소 출신들이 외부에서 우대를 받고 있으며 100% 취업이 된다고 한다. 오히려 국내파 박사들이 외국에서 우수한 조건으로 초청받고 있다. 이곳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에게 ‘하면된다.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연구를 하며 이러한 정신자세가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황 교수는 연구원들과 격의없이 편하게 지내며 항상 열려있는 개방형 교육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유스러움이 더욱 조직력을 강화시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과학기술계도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황 교수는 강조한다.

황교수는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며, 대학도 수의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정부관련 부처에서는 민

생명공학은 이제 시작 ... 많은 과학자 참여를

사회적 공헌도 높은 분야의 사람이 우대받아야

황우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기쁩니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연구에 정진하여 사회와 국가에 보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을 받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소감이다. 세계최초 체세포 복제이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한 것은 생명공학 발전에 한단계 올린 것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연구성과가 세계에 주목을 받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생명윤리 찬반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 본다. 물론 생명의 실험이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생명의 창조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인 합리성이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이공계로 진학하여

간기업과 공동으로 황 교수를 노벨상 수상자로 만들기 위해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후원을회를 조직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연구성과에 못지않은 기대를 계속 해도 좋다는 당당한 자신감이 아름답게 보였다. 황 교수는 후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당부한다. “생명공학분야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후배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지원하여 무한한 인간 창조의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업적

인간의 몸체 각부분으로 분화할 수 있는 인간줄기세포를 확립하였음. 특히 환자의 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확립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립기술을 개발하여 세포 치료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면역 거부반응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받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 상은 올해로 제 2회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4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 3억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회에는 김규원 서울대 약학과 교수와 김진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받았다.

“수 상소식에 먼저 놀랐으며, 매우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연구·교육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었고, 훌륭한 제자들이 함께하여 오늘과 같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교수는 1940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해방 후 초등학교(북한의 인민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1948년에 38선을 넘어 서울로 왔다. 부모님의 뜻과 반대로 MIT 물리학과로 진학. 이는 그에게 과학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과학이 인문사회과목에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과학도 철학, 정치학 등 인문과학의 내용을 수용하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윤교수는 마치 어린애가 놀이를 재미있게 하는 것과 같이 연구를 즐겁게 한다.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연의 원리를 작은 것이라도 발견하게 되고 또 이를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연구와 학문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재미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해왔다.

응용연구도 호기심과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



훌륭한 과학자는 끊임없는 연구에서 나와

계면조직 · 입자성장연구 족적 남길것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어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연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과학자는 정년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이에 반해 저는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지금하고 있는 계면 조직과 입자 성장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정리하여 세계의 후배과학자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학교에서 강연과 연구계획이 계속 잡혀져 있어 과학자가 된 것에 행복합니다.”라고 윤교수는 말한다.

평양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기 때문인지, 북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분야의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서 북한의 과학자들과 보람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

계면공학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 수준이다. 이러한 선진기술수

준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위해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매우 진지해 보인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딸 셋이 있다. 과학기술자는 나이가 들어도 연구를 계속하여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년제도는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한다. ①

윤덕용 교수의 연구업적

분말재료의 액상소결 중 일어나는 기공소멸 현상의 발견 및 이론제시. 다결정체에서 조성변화에 의한 입계와 액상막의 이동현상을 발견하고, 그 원리의 규명과 실험적 입증. 입자성장과 계면구조 변화와의 관계 정립한 것으로 평가